



마을공동체 의례

경기 북부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방식

우리 마을 산신제

京畿道北部村落共同體儀禮 - 山神祭

North Gyeongido's communal ritual - Religious ritual for
a mountain spirit



일러두기

Explanatory note

이 보고서는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에서 2016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통문화 주제별 콘텐츠 - 마을공동체 의례를 기획 발굴지원한 결과를 책자로 엮은 것이다.

2016년 4월부터 전승마을을 발굴하고 8월부터 11월 까지 진행된 산신제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경기북부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의례를 사실 그대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지역의 원천자원을 아카이빙하고 활용을 위해 일반에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해당 지역 문화원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경기 북부
마을공동체 의례
전승 마을위치



가 평

- 1. 연인산 잣고을 산신제

고 양

- 2. 화정동 국사봉 산신제
- 3. 관산동 마근개 도당제
- 4. 성석동 진발마을 상달고사

구 리

- 5. 갈매동 산치성

남양주

- 6. 와부읍 시우리마을 산신제
- 7. 조안면 진중 1리
마진·조곡마을 군웅제와 산신제
- 8. 조안면 진중 2리 종말 산제사

동두천

- 9. 보산동 걸산리 산신제
- 10. 광암동 기촌마을 산제사
- 11. 지행동 은행나무 고사

양 주

- 12. 은현면 향동마을 산신제
- 13. 남면 매곡리 맹골마을 산제사
- 14. 백석읍 가업 1리
상가업마을 산제사

연 천

- 15. 청산면 대전리 한발마을 산제
- 16. 백학면 노곡 2리 산단제사

의정부

- 17. 하금오동 꽃동네 산치성

파 주

- 18. 광탄면 금병산 산치성
- 19. 광탄면 용미 4리 진지동 진대고사
- 20. 아동동 안산말 학령 산신제

포 천

- 21. 신북면 심곡리 깊이울 왕방산 육산제
- 22. 선단동 왕방산 산신제

Contents

**I 경기 북부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전통문화 전승방식** 15

II 경기북부 마을공동체 의례

1. 가 평	잣고을 산신제	15
2. 고 양	국사봉 산신제	23
	마근개 도당제	10
	진발마을 상달고사	10
3. 구 리	갈매동 산치성	10
4. 남양주	시우리마을 산신제	10
	마진·조곡마을 군웅제와 산신제	10
	종말 산제사	10
5. 동두천	걸산리 산신제	10
	기촌마을 산제사	10
	은행나무 고사	10
6. 양 주	향동마을 산제사	10
	맹골마을 산제사	10
	상가업마을 산신제	10
7. 연 천	한발마을 산제	10
	노곡 2리 산단제사	10
8. 의정부	하금오리 꽃동네 산치성	10
9. 파 주	금병산 산치성	10
	진지동 진대고사	10
	안산말 학령 산신제	10
10.포 천	깊이울 왕방산 육산제	10
	선단동 왕방산 산신제	10

III 전승의 주역들 15

마을공동체 의례 : 경기 북부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전통문화 전승방식

흔히 말하는 “경기 북부”는

현재 행정구역상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0개 시·군을 말한다. ‘경기도 북부지역’이다. 지리적으로는 한강 이북에 위치하고 휴전선과 접해 있다. 역사적으로는 오랫동안 한반도의 중심이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개경을 도읍으로 삼으면서 한반도의 중심으로 자리를 굳혔다. 문화적으로도 중심부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양상으로 문화가 전개되어 왔던 게 분명하다.

그러나 많은 것이 바뀌었다.

바뀌어 가고 있다. 많은 것이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무슨 이유에서 일까? 다른 지역의 그것과는 무엇이 같고 다른 것 일까? 이것을 드러다 보는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지역에서 지금도 전승하고 있는 전통문화 중 한 가지를 들여 다 봤다.

마을에 따라서는 ‘산제’, ‘산치성’, ‘산고사’, ‘산제사’, ‘마을고사’, ‘동네고사’라고 말하고 ‘산신제(山神祭)’라고 쓰는 마을공동체 의례가 그것이다.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자연 중에서 가장 높고 큰 것은 산’이라는데, 그 산에 의지하고 정성을 드리는 행위는 자연스럽고 현명했다.

산악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산신에 대한 의례가 있다.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음력 10월 상달을 중심으로 제의일시가 치중되어 있다. 충청, 경상, 호남 등 남부지역에서는 정월 보름 의례가 월등히 많은 것에 비해 그렇다는 얘기가.

경기북부 지역의 10월 상달 의례는

고구려와 고려의 국가제의 전통을 이었다는 것, 수렵과 밭농사를 하던 생업활동 지역의 수확의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남부지역 논농사권역의 정월 보름의례, 농경의례, 파종의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수렵문화는 사라진지 오래다.

문명의 발달로 수확이 적은 밭농사보다는 논농사가 용이해 졌다. 이러한 달라짐의 양상을 경기북부 지역 마을공동체 의례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의 전승현장은 고정될 수가 없다.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적응하기 때문이다.

경기 북부지역 마을공동체 의례현장에서 본 전승 방식은 다양했다.

‘3~4대 째 전해 내려오는 산신제 장부’가 있어서 혹은, ‘어른들이 하던 대로’ 의례를 전승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오래전에 단절된 국가의례였다는 이유로, 마을마다, 가정마다 각각 지내오던 전통인데 단절된 것이 안타까워 이번에 의례를 복원 한 마을도 있다.

단잔단배의 정갈하고 소박한 고행의 산치성과

조상제사와 같고 다름을 구분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 기제사 방식, 형식과 절차가 체계화된 향사 절차를 적용한 산신제, 무당굿과 풍물이 따르는 동네고사,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례 등 다양한 전승방식을 경기북부지역 마을에서 모두 볼 수 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은 “전통문화의 보고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다양성 그 기층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에 대한 고수(固守), 이를 자존감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간 마을공동체 의례에 대해 이래저래 기록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외부인의 참가를 허락하지 않는 의례의 금기 때문에 누구나 전승현장을 직접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선 지원 사업으로 어렵게 사진과 영상기록을 시도했다.

본문은 사진이 중심이다.

글은 현장조사를 가서 긴 시간을 보낸 경우와 영상으로만 현장을 본 것이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 사진에서 제의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오고가는 대화와 상황을 적었다. 필자의 시선일 수밖에 없다. 마을사람들도 대부분은 산신제를 지내는 현장에 참석한 적이 없다. 이 기록으로 현장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전통의례를 전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자랑할

만한 일이다. 마을에는 이를 가능할 수 있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 물론 마을사람 모두다. 그래서 이 기록이 마을을 기리고 그 주요 역할을 해온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드러냄으로써 마을과 지역의 자량으로 자긍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전통문화 전승력 강화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조금인 지원금에 번거롭기만 했던 프로젝트였다. 주제 선정을 같이 고민하고 해당 지역의 마을공동체 의례 전승 마을을 발굴하고 또 현장을 기록해준 경기북부 시·군 문화원 사무국장님들께 감사드린다. 물론 원장님, 향토사 관련 소장님, 담당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그저 “마을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하시던 거라 정성껏 지낸다.”고 하면서 굳건히 의례를 전승하고 있는 모든 마을 분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그 분들이 계셔서 한민족이 한민족이고 경기도가 경기도 인 것이다.

町共同体儀礼： 京幾北部で生きてきた人々の 伝統文化の伝承方法

私たちがよく言う「京幾北部」は、現在の行政区域上は京幾道の北部地域に位置している10ヶ所の市・郡を表す言葉である。つまり「京幾道の北部地域」ということだ。地理的には漢江の北側に位置し、軍事境界線と接している。歴史的には昔から朝鮮半島の中心であり、三国時代から高麗時代まで開京(ケギョン)を首都にし、朝鮮半島の中心として座を固めた。文化的にも中心であったため、他の地域とは異なる様子で文化が展開されてきたのが確かである。

しかし、多くのことが変わった。変わっていつている。全てが画一化されているこの状況で町の歴史と伝統を守っている者たちがいたら、どのような理由だろうか。他の地域のそれとは何が同じで何が異なるのか。これを覗くことの意味は何だろうか。

この地域で今も伝承している伝統文化の1つを覗いた。町によっては「山祭」「山致誠」「山告祀」「山祭祀」「町告祀」「町祭祀」とも言い、「山神祭」と書く町共同体の儀礼がそれである。「人間が認知できる自然の中で、最も高く大きいものは山」と言うが、その山に頼り、祈る行為は自然であり、賢明だった。

山が多い韓国の場合、全国的に山神に対する儀礼がある。京幾北部地域では、陰暦の10月上旬を中心に祭儀の日時が偏っている。京幾南部、忠清、慶尚、湖南地域では、上元の儀礼が圧倒的に多いのに比べ、そうだという話である。

京幾北部地域の10月上旬の儀礼は、高句麗と高麗の祭儀の伝統を継いだこと、狩猟と畑農業をしていた生業活動地域の収穫儀礼で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南部地域の水田農業圏の上元の儀礼、農業儀礼、種まきの儀礼とは異なるのが当然だ。

狩猟文化は既に消えた。文明の発達によって、収穫の少ない畑農業よりは水田農業が容易になった。このように変わっていく様子を、京幾北部地域の町共同体の儀礼ではっきりと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文化の伝承現場は固定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なぜならその当時の状況により、有機的に変化し、適用されるからである。

京幾北部地域の町共同体の儀礼現場で見た伝承方法は様々だった。「3~4代目も継いできた山神祭の帳簿」があって、もしくは「上長らが行っていたままで」儀礼を伝承している町がある反面、昔断絶された国の儀礼だったという理由で各町に、各

家庭でそれぞれ継いできた伝統だが、断絶されたことを気の毒に思っている。

一杯一例の清らかで素朴な古形の山致誠と先祖の祭祀の同じで異なるところを区別したり、しなかったりする忌祭方法、形式と手続きが体系化された祭祀方法を適用した山神祭、巫女の儀式や祈りと農楽も一緒である町告祭、変化の過程であると見られる儀礼など、様々な伝承方法を京幾北部地域の町で全て見ることができる。だから、京幾北部地域は「伝統文化の宝箱」である。

表に表れる多様性の底にある伝統に対する固守、これを自尊心と表現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今まで町共同体の儀礼に対してあれこれと記録された事例があった。しかし、外部の人の参加を許さない儀礼のタブーのせいで、誰もが伝承現場を直接目にするのは難しい。だから、優先支援事業として難しく写真と映像記録を試みた。本文は写真中心である。

文章は現地調査をして長い時間を過ごした場合と、映像だけで現場を見る場合の違いがある。筆者の場合、写真で祭儀現場を感じられるように現場を交わる会話と現場の状況を書いた。だから、筆者の視線にならざるを得ない。町の人々のほとんどは山神祭を行う所々に参加したことがないので、この記録を通じて現場を感じることもできるのである。

自分が住んでいる町で伝統儀礼を伝承していることは確かに自慢すべきことである。町ではこれができるように影響力のある人がいるが、それはも

ちろん町の人全員である。それゆえこの記録が町を称え、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人々を主人公として表すことで、町と地域の自慢であり自負心を表現するきっかけになることを期待する。それが伝統文化を伝承する力が強化される主な要因になるに違いないからだ。

あまりにも少ない支援金で、手間がかかったプロジェクトだった。テーマの選定と一緒に悩み、該当地域の町共同体儀礼を伝承する町を発掘し、また現場を記録してくれた京幾北部の市・郡文化院の事務局長に感謝の言葉を述べる。もちろん、院長、地方史に関する所長、担当者にも感謝の言葉を述べる。何よりもただ「町の上長たちが昔から行っていたもので、私たちも真心を込めて行っている」と言い、しっかり儀礼を伝承している町の住民全員にも感謝の言葉を述べる。その方々がいるから、韓民族が韓民族であり、京幾道が京幾道である。

A Communal Ritual : A way that people residing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inherit their own traditional culture

At present,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 refers to a collective area of 10 si and guns located in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 namely ‘the North area of Gyeonggi-do’. Geographically the area is located the northern part of Han River and bordered in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has been a central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over scores of years; From the Three States era through the Goryeo Dynasty, Gaegyeong had become a Korea’s capital city, cemented its position as a core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time being. In addition, it is said that this area played a cultural hub as well. Considering all these elements, the Northern Gyeonggi has developed its own, unique culture over the other provinces.

Now we see things have changed; almost all have been moved into standardization across the nation including culture. However some people try to conserve the history and tradition of their own village of all these changing era. Is there any special reason for them to do? What makes a difference or not in their own village over other ones? What does it mean for them to see and recognize what they still have in the village?

Here is one of many traditional cultures which have been handed down in this province to date. It is a communal ritual that is called as “Sanje”, “Sanjiseong”, “Sangosa”, “Sanjesa”, “Maeulgosa”, or “Dongnegosa” depending on village, and written as “Sansinje”. There is an old saying that San (Mountain) is the largest, highest one of all part of nature that human being is able to rely on. In such a sense, it seems to be natural and sensible of the village people depending on mountain and give offerings to mountain with their utmost sincerity.

Traditionally Korea as a mountainous nation has a ritual for a guardian spirit of a mountain all over the nation. In particular,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 sees most rituals coming in October (lunar calendar) while other provinces such as Southern Gyeonggi province, Chungcheong, Gyeongsang and Honam province establish the ritual date in the 15th of January a year.

This is meaningful that the Northern Gyeonggi’s October ritual originates from the national ritual of the Gogurye era and the Goryeo Dynasty as a harvest ritual held in the farming and hunting areas of old agricultural societies,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Daeborum Festival (the full moon of January), Agricultural Ritual and Seeding Ritual that are held in the rice farming area of the southern part of the country.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hunting culture disappeared. As the civilization has been developed, the rice farming produced much more yields that the field farming did and emerged as a main industry. This change reflected in the local communal ritual

of the Northern Gyeonggi. A culture is just like an organism, growing depending on a situation and a place from time to time.

Therefore there are a variety of ways of succeeding communal ritual in the Northern Gyeonggi alone. Some villages keeps Sansinje that is handed down over three to four generations, others holds a ritual as ‘ancestors do’ or others restore a ritual in a regional government wide that was an old, disappeared national one but only has been being held in some home and village only.

More specifically, there are versatile rituals in the Northern Gyeonggi’s villages: Sanchiseong which is simple, nice and neat with a single drink and a single bow, a commemorative rite that is different but slight same as a memorial service for one’s ancestors, Sansinje systemized with formality and procedure that employs a Hyangsa process, Dongnegosa that follows an exorcism by a Shaman and a local farming band, another ritual that is in the middle of change. As a result, when it comes to a traditional culture, you can say the Northern Gyeonggi is a rich treasure house.

Behind such a variety of survived traditions, there are village people who try to keep their tradition conserved with persistence. Would this be seen as a cultural pride that they have?

We can search and read around several written records regarding the communal ritual up until now. In general, such rituals are with a limited access and the public is not allowed to joint and watch the traditional ritual. This let us to attempt to take photos and moving images on the ritual spot, under the help of the project supported by the local government.

A key message of the main texts is represented in images. Writings depend on situations that you watch a spot in person, in moving image, etc. So under the images we put it down actual talks which are communicated by all the relevant people in the spot for you to feel a living ritual experience as much

as possible. But this could be still limited by my point of view. As said, village people have barely taken part in the spot where Sansinje is held.

These records have been made to convey a sense of the traditional spot to the public.

You can be proud yourself living in a village where the traditional ritual has been handed down. To this end, some leaders are required to organize this ritual successfully in a village but in my opinion, all of village peoples are the ones who can play an important role of it. These recordings will serve an opportunity that people recognize they are the leading people themselves in succeeding the tradition; feel proud of their own village and further its province. No wonder why the village people will be a momentum that drives to keep a traditional culture of a region handed down.

Maybe, this project could be a burden for us to implement due to a small amount of subsidy. Somehow we all made it and I proudly say this event has been successfully finished by all relevant people. I extend my thanks to the secretaries of each culture center of the Northern Gyeonggi’s si and gun who had a brainstorming for a theme selection, discovered hidden villages which have been succeeding the communal rituals of each region and handed the cultural spot down. Mo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pecial gratitude to all of village people who inherit the traditional rituals in person, saying “all we do is just to follow what our ancestors in this village do with sincerity. It is obvious that the village people themselves play the pivotal role of building a true Gyeonggi province and are ones who keep Korean race proud.